태고종 제6대 원로의장에 호명 스님 추대

7월 10일 개원회의서 만장일치
부의장에 지현·성오 스님 선임
보혜 스님 등 17명 승정 추대
호명 스님 "종단 발전 적극 협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제6대 원로회의 상반기 의장에 운설 호명 스님이 추대됐다.

태고종 원로회의는 7월 10일 서울 종로 한국전통불교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6대 원로회의 개원법회를 열고 상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원로회의는 제6대 상반기 의장으로 운설 호명 스님(전 총무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수석부의장에는 경담 지현 스님(전 호법원장), 차석부의장에 희범 성오 스님(전 행정부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태고종 제6대 원로회의 상반기 의장 호명 스님은 성월 복철 스님을 은사로 1962년 출가해 1964년 선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암사 불교전문강원 사교과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한 뒤 서울 노원구 염불사 주지, 제30세 선암사 주지를 역임했다.

총무원 사회부장을 시작으로 제11·12대 중앙종회의원, 서울북부교구 종무원장, 총무원 종무조정실장, 중앙사정원 사정위원, 총무원 부원장 등을 맡았으며, 서울 노원시민모임 공동대표와 노원경찰서 경승실장으로도 활동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으로서 종단 갈등을 성공적으로 봉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대 직후 호명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한 불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호명 스님은 "27대 집행부를 거치면서 종단 안정 기틀이 마련됐다면, 현재 28대 집행부에서는 종단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해지면서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종단 발전 사업에는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하다. 우리 원로스님들이 종단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호명 스님은 종단 발전 불사를 위한 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할 뜻을 밝혔다.


태고종 제6대 원로의장으로 추대된 호명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종단 승정원의 승정을 원안대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보혜(경기동부)·혜운(서울강북)·지족(경기남부)·각림(제주)·법련(총무원 직할)·법장(충북)·보경(총무원 직할)·남파(광주전남)·법선(총무원 직할)·혜법(충북)·원광(인천)·수암(제주)·지암(광주전남)·해경(경기청련사)·운암(서울)·춘곡(제주)·법산(서울남부)·설운(경기북부) 스님이 승정으로 추대됐다.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제6대 원로회의는 그동안 중앙과 지방 종무기관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두루 겸비하신 새로운 원로스님들이 대거 추대돼 구성 면모를 일신했다"면서 "더 깊고 폭넓은 말씀으로 미래를 향한 종단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은 소납의 총무원장 취임 이후 보다 멀리 더 높게 나아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의 자립화와 종단 서열재고 및 교육과 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 등 소납의 공약이 성공하기까지는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 해결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종도의 성원과 어른스님들의 신뢰를 믿고 있다"면서 "모두가 하나되는 응집된 동력으로 반드시 태고종의 전통과 정통성을 널리 알리고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제6대 원로의원으로 추대된 호명·법경·선혜·인월·지운·법선·덕수·금명·경담·관정·회범·운상·설봉·설신·벽산·월봉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등이 참석해 원로회의 개원을 축하했다.

태고종 구족계 수계산림…"종단 화합·발전 앞장서라"

7월 9일 문화전승관 금강계단서
비구 38명 · 비구니 15명 탄생해
상진 스님 "대신심을 일으키라"


태고종은 7월 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제23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구족계 수계산림을 통해 새로운 출가 수행자들을 탄생시켰다. 이를 통해 비구 38명, 비구니 15명 등 총 53명이 태고종 홍가사를 수했다.

태고종은 7월 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제23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구족계 수계산림은 오전 입재식 및 율장강의와 오후 구족계 수계법회 나눠 진행됐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구족계는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된 것으로 수행자는 이를 토대로 온전히 열반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구족계 수지자들은 대신심을 일으키고 불도를 이루는 굳은 서원을 세워 깊이 마음을 성찰하고 수계에 임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오늘 수계법회를 통해 종단의 중진 승려이자 교역자로서 각자가 종단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찰불사와 수행정진에 각고의 노력을 더해달라"고 당부했다.

율장 강의는 '비니야장(毘奈耶藏)의 요체'를 주제로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대진 스님(대전 태고사)은 "계를 잃으면 수행자의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다"면서 "계율을 나침반으로 삼고 수행자로서 살아가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불이성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수계법회가 열렸다.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 갈마아사리 혜일 스님, 교수아사리 시각 스님을 삼화상으로 재흥·능해·정운·구산·지허·휴완·청호 스님을 칠증사로 모시고 봉행됐다.

교수아사리 시각 스님은 구족계를 받지 못하는 법 13가지와 수계 가능한 법 16가지를 구족계 수계 대상자들에게 확인했으며, 호궤합장한 대상자들은 질문에 답하며 스스로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후 연비의식과 몸과 마음을 맑힌 수계자들은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에게 전계를 받아 비구 250계·비구니 348계를 수지했다.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은 태고종 홍가사를 수한 53명의 비구·비구니스님들에게 종단 발전의 주역이 될 것을 당부했다. 수진 스님은 "오늘 구족계 수계자들은 태고종의 비구·비구니로서 종단의 '수청주(水淸珠)'가 돼야 한다"면서 "수행자로서 청정함을 지키며, 종단화합과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경륜·지혜로 직할교구 미래 이끌겠다"

김학규 제8대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직할교구신도회 조직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불교발전을 위해 삼보외호와 종단 핵심 사업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7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제3차 대의원총회에서 8대 회장에 선출된 김학규〈사진〉 도선사 신도회장이 신도회 활성화와 종단 핵심사업 동참 의지를 밝혔다.

김학규 회장은 '삼보외호'와 '불법홍포'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왔다. 지난해부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최근에는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에도 출석 중이다. 김 회장은 "잘 배우고 익혀 사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명상 활동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도 함께 하고 싶다"면서 "이를 통해 신도조직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자인구 감소화와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고민도 깊다. 김 회장은 "순례 프로그램과 세대별 포교 콘텐츠 개발 등 신도회 차원에서 사찰에서 행할 수 있는 전법 활동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임원과 회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자리이타(自利利他)'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김 회장은 "조직 강화를 위한 신도 관리뿐 아니라 자선골프대회, 자원봉사 등 사회 공동선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면서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직할교구신도회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지 어느덧 30년. 체육계에도 관심이 많아 전국시군체육회 협의회장과 대한체육회 이사도 역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108배와 사경을 통해 마음수행을 꾸준히 해온 덕분에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신행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불법을 전하며 노년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께 '해산(海山)'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김 회장은 "깊고 웅장한 바다와 높은 산의 기상을 배워 큰마음으로 불도를 닦으며 세상에 임하라는 뜻"이라면서 "법명에 걸맞은 태도로 임기 2년을 후회 없이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본말사주지인사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의견수렴

임기 중 사찰부동산관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스님은 6년 후에나 교구본사 주지로 임명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계종은 최근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찰부동산관리법 제9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면 징계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교구본사 주지로 임명될 수 없다.

조계종 총무부는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1조 임용 결격 사유 내용 중 관련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또는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미승인 임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선거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조항으로 본말사 주지 임용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과 종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제13조 임명적부 심사 관련 조항을 개정, 임명적부 심사를 위한 조회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 및 기관을 정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는 7월 21일까지며, 의견은 서면과 이메일(moon44@wehago.com), 팩스(02-720-3302)로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임은호기자

대원아카데미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출석 교육)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에 필요한 학점 취득 가능
학습과목
불교심리학(불교학 전공/3학점/목요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교양/3학점/금요일)
주 1일(목 · 금) 14:00~18:00, 15주
신청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수강료: 100,000원(과목당)

학점은행제 과목과 평생교육과정 동시 수강 가능
○불교심리학(학점)+명상지도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정신건강과 참선명상(학점)+심리상담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 평생교육과정
모집과정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출석 수업
(수) 13:00~17:00
(목 · 금) 13:00~18:00
수강료: 300,000원(학기당)

디지털대원아카데미(온라인 교육)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모집과정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온라인 수강
(수) 13:00~17:00
(목 · 금) 13:00~18:00
수강료: 200,000원(학기당)

○ 공통과목: 유식과 불교의 마음, 뇌 과학과 불교,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명상과 (생명)과학, 불교란 무엇인가, 서양에서 보는 불교, 명상심리학 등
○ 전공과목: 명상과 치유, 불교심리학, 상담심리학,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명상의 이해와 실습, 정신분석학, 불교수행과 심리치료, 인지심리학, 위빠사나 이론과 실습, 마음챙김의 이론과 실습, 상담심리학, 사마타 이론과 실제,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습 등

○ 교수진
김홍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문학 박사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동서양심리학 박사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자아초월상담학전공 교수, 심리학 박사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불교학 박사
한자경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 철학 박사
효록 스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상담학과 초빙교수, 상담학 박사

○ 특전 및 혜택
성적 최우수 장학금: 수강료 100%
성적 우수 장학금: 수강료 50%
스님 등록 시, 본인 수강료 50% 할인
가족동반 등록 시, 1인 수강료 50% 할인
수료자 재등록 시, 수강료 50% 할인
2개 과정 동시등록 시, 1개 과정 50% 할인
민간자격(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취득자격 부여

○ 접수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대원아카데미: www.daewonacademy.org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digitaldaewon.org
접수 기간
평생교육과정: 2024년 9월 4일(수)까지
학점은행제: 2024년 9월 5일(목)까지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4년 9월 11일(수)까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BBS불교방송) 3층(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도보 50m)
문의: (02) 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kbpf.org